

# “한번 시작한 일 끝까지 포기말라”

성취동기와 정진

몇 해전에 이색적인 세미나가 교육자와 학부모 공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제목은 “심(心) 약한 어린이는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 내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은 시작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도전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밖에 모르며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을 자기의 고통이나 슬픔으로 여길 줄 모른다. 이렇게 심약(心弱)한 어린이가 된 까닭은 핵가족제도로 인한 부모의 과보호적 현상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얼마전에 기이한 현상을 보았다.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이 등교하는데 어머니가 책가방을 들고 손을 붙들고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자녀들이 숙제하는 것을 보다 애처로운 나머지 어머니가 공책과 연필을 빼앗으며 “내가 해 줄게”라고 말하며 대항한다. 글씨를 일부러 자녀 글씨답게 쓰며 “네 글씨 같니?”하고 물어 본다. 숙제를 제출한 후 좋은 평점을 받은 어린이는 “엄마 여기 있어”하며 어머니에게 던진다. 내 힘으로 하지 않은 것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데리고 온

부모의 과보호가 심약한 아이 만든다  
어려움 뚫고 나가는 용기와 의지 길러주어야 참부모

경 재제로 극기훈련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한다. 혹시 발병하는 어린이가 있을 것 같아서 차를 따라 오도록 하였는데 배가 아픈 어린이가 2명 있어서 그 아이들을 차에 태웠다. 그런데 5학년 어린이 중 비만인 어린이가 1명 있어서 걸기를 그렇게 힘들어 하였으나 교장선생님이 이 어린이를 도와서 끝까지 걸도록 하였다. 이 어린이는 힘들어서 끝까지 걸었으며 성취감에 부풀어서 그렇게 좋아하였다.

학교에 돌아와서 글짓기를 하였는데 교장선생님이 그 어린이의 글에 관심이 있어서 읽어본즉,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하며 “내가 그렇게 고생하기는 처음이지만 끝까지 걸었어”라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야단을 쳤다고 한다. 야단의 내용은 “너도 배가 아프다고 하였으면 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머리가 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험결과가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동근 고리 10개를 주고 이를 던져

김중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14>

성공한 사람은 남보다 성취동기 강하다  
돈·명에 물거품... ‘팔정도’ 정진 생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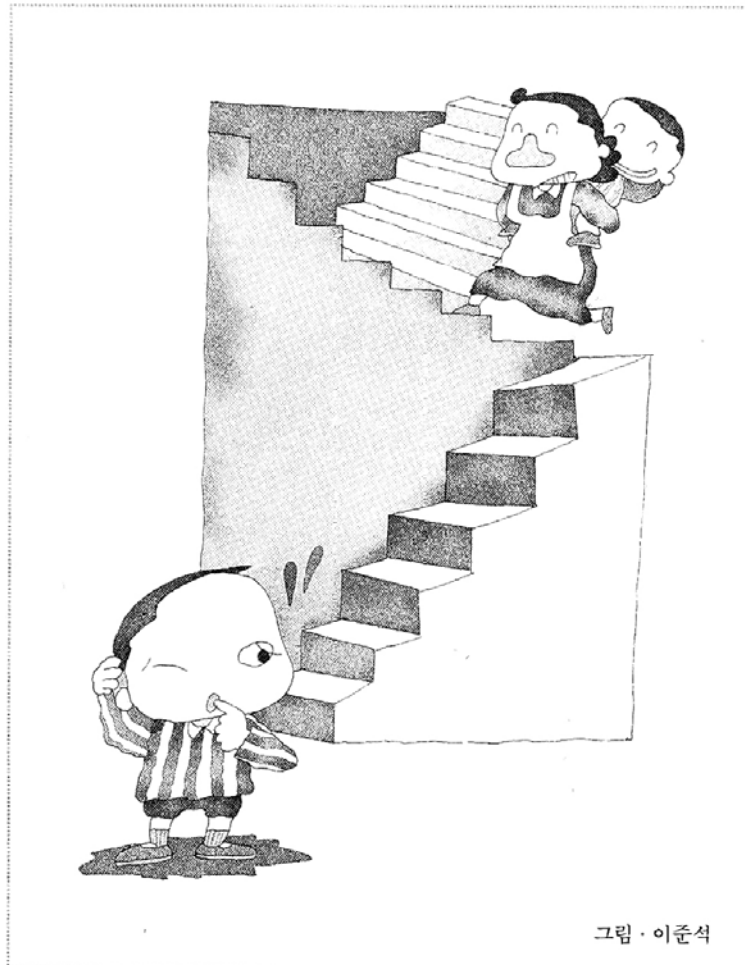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서 막대기에 들어가도록 요구한다. 거리는 본인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고 거리가 막대기에 가까울수록 낮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이 때 세 유형의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막대기 가까이 가서 10개를 모두 들어 가도록 하는 어린이이며, 다음은 멀리서 던져서, 하나도 안 들어가는 어린이이고, 세 번째는 7개 정도는 들어가고 3개 정도는 실패하는 거리

를 들고 있다. 그의 자서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다.

“젊어서 인천에서 노동을 할 때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것은 반대 때문이었다. 피를 내어 책상을 놓고 그 위에서 자는데 반대가 기어 올라와서 무는 것이었다. 다시 기가 막힌 묘안을 찾아냈다. 그것은 세숫대야 같은 그릇에 물을 넣고 책상다리를 세숫대야에 담그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어찌 된 일인가? 며칠 후 반대가 또 무는 것이었다. 자세히 관찰을 해 본즉 반대가 벽을 타고 천장에 기어올라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여기서 나는 크게 깨달은바 있다. 반대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저렇게 애쓰는데 인간으로 태어나 반대만 못할 수 있는나 하는 깨달음이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비록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이 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다.

취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를 향한 꾸준한 노력인데 최근의 청소년에게는 목표의식이 잘 못되어 있거나 회박할 뿐 아니라 요령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성취동기와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精進)은 다른 개념이다. 성취동기는 목표의 타당성보다 노력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며, 목표가 있다면 외적인 데 있으며 성취의 시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진은 정진(正精進)과 같이 올바른 것을 향한 정진세계의 노력을 의미하며 성취의 시점이 없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공통점은 노력에 있다.

불자의 생활은 정진에 있다. 정진의 생활 없이는 불자라고 말할 수 없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오늘날의 연약한 청소년들에게는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용기와 의지를 길러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무엇을 성취하려는 의욕과 동기인가가 문제된다. 만일 잘못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동기라면 도리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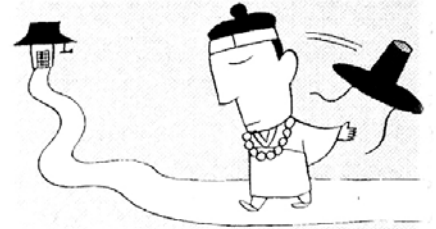
성취동기의 목표를 팔정도(八正道)인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의 씩씩함, 바른 정신통일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계속 노력 한다면 이는 정진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성취의욕이 없는 것도 문제이러나, 생각하는 목표 자체가 권력, 금전, 명예와 같은 꿈, 그림자, 물거품에 두고 있음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참다운 정진의 생활은 오늘날 청소년 교육의 지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불교에서는 원(願)을 세운다고 한다. 이 원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정진이다. 원은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최고의 원은 사홍서원(四弘誓願)이다. 불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중생을 제도하고, 번뇌를 끊으며, 한량없는 법문을 배우며, 불도를 이루기’ 위한 정진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 생활불교용어



“이판사관이 뭐.” “이판사관 해보는 거야.” “이판사관 막다른 길이다.”

이처럼 이판사관은 마지막 물린 궁지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판사관은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의 합성어로 불교에서 나온 용어다. 본래 이판은 참선, 경전공부, 포교 등 불교의 교리를 연구하는 스님이고, 사판은 절의 살림(山林)을 하는 스님이다.

이능화씨가 쓴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 하권 《이판사관사찰내정(理判事判寺刹內情)》은 다음과 같이 이판승과 사판승을 설명한다.

“조선사찰에 이판승과 사판승의 구별이 있다. 이판이란 참선하고 경전을 강론하고 수행하고 흥법 포교하는 스님이다. 속칭 공부승(工夫僧)이라고도 한다. 사판은 생안에 중

### 이판사관

이판승과 사판승의 합성어  
‘마지막 상황’으로 뜻 변화

사하고 절의 업무를 꾸려나가고 사무행정을 해나가는 스님들이다. 속칭 살림승(山林僧)이라고도 한다. 살림이란 절의 모든 사무와 재산관리를 통틀은 말이다. 이판과 사판은 그 어느 한 쪽이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 이판승이 없다면 상회님의 지혜광명이 이어질 수 없다. 사판승이 없으면 가량이 존속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이판사관은 ‘마지막’을 뜻하는 의미로 바뀌었을까? 조선이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국교로 세우면서 당시 스님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의 신분계승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이판·사판은 끝장이었다.

본격적인 다원종교시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구해야 할 이판의 책임은 만만치 않다. 또 과학화로 사찰운영이 전산화되고 있으며 사찰재산관리도 현대적 회계 개념이 가미되는 상황에서 사관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이판사관”을 종전의 냉소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사회변화 속에서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갈 이판승과 사판승을 일컫는 본래의 의미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관 야단법석’

###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안면기형·안과(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 1600년 한국불교의 신비

###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비디오 출시

이름모를 산야에 흠어진 기와장 하나 둘뿐리 하나에서 선조들의 지혜와 혼을 배우고자하는 사명감과 우리문화 바로세우기의 일념으로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고려대장경, 석굴암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선각자의 체취를 느끼시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교를 아는 당신에게 21세기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삼보사찰 - 불보종찰 통도사  
- 법보종찰 해인사  
- 승보종찰 송광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고려대장경 I, II  
- 불국사·석굴암 I, II

불교전통의식, 의례  
- 예불  
- 발우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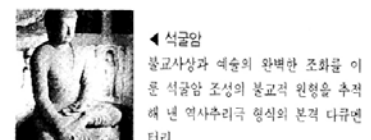
불교전통문양  
- 한국사찰의 꽃문

대하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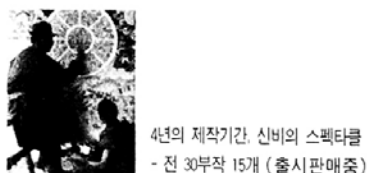
### 티베트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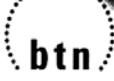
▲ 예불  
적달승과 중생구제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불교의식 장면이 차를 새롭게 조명해 낸 본격 다큐멘터리 제1부 ‘대결점, 제2부 7백년 보존의 신비’



▲ 석굴암  
불교사상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석굴암 조성의 불교적 원형을 추적해 낸 역사유적의 본적 다큐멘터리



4천의 제작기간 신비의 스펙타클 - 전 30부작 15개 (출시판매중)



구입문의처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3272-0781~5, 706-3502~5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